

새한, 공장용지 18만4000평 2500억원 매각

새한은 경북 경산과 대구공장 용지 18만4000여평을 2560억원에 매각했다.

새한은 5월25일 공장용지 매각 내용의 투자유치 본계약을 중산도시개발과 체결했고, 중산도시개발은 계약 체결 후 256억원을 계약금으로 새한에 전달했다.

계약금을 포함해 총 1024억원이 2005년 새한에 들어올 예정이고 나머지 1536억원은 2006년 입금될 것으로 알려졌다.

새한은 용지 매각대금 2560억원 대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차입금과와 부채비율을 현재의 5862억원, 198%에서 4000억원 이하, 170%로 낮출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5/05/26>